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1호 [무계 제25504호] 주제 105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 대회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기며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12월 25일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3일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 《초급당들 강화발전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제당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린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참가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지난 시기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들이 옮겨 분석총화되고 현시기 초급당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실제적인 방도들이 충분히 토의되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소집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당대회 못지 않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가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초급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당앞에는 모든 당조직들을 백결불굴의 전투대오로 정제화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 역사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초급당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합니다.

초급당은 당원들이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입니다.

당원들은 누구나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와 초급당에 소속되어있으며 초급당을 기본단위로 하여 당원들의 정치조직생활이 조직진행됩니다. 초급당을 강화하여야 모든 당원들을 당의 사상과 명도에 충실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울수



있으며 당의 기초를 흔들지 못하게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초급당을 통하여 집행되게 됩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각급 당조직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초급당을 중시하는 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초급당을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집행되며 당정책의 운명이 초급당의 역할에 달려있기때문입니다. 초급당은 포병에 비유해 말하면 화력중대와 같습니다. 초급당의 전투력이자 우리 당의 전투력이며 초급당을 강화하는데 전당강화의 지름길에 있습니다.

기층당조직건설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고 구현하여오신 독창적인 당건설 방식이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전통입니다.

오늘 초급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날로 로골화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선을 관철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길은 결코 환란대오가 아니며 우리는 전당적,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 거머쥐어 최후승리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지금 전제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불타는 애국의 열의를 안고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급당조직들이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벌리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초급당조직들은 초급당을 중시하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당조직을 최정에 전투대오로 다지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초급당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아가 합니다.

현시기 초급당조직들의 기본임무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기본전투부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입니다.

초급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해당 단위 정치작량모부로서의 사업과 본분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적극 옹호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조직들의 기본사명이며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사업성과는 당정책관철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초급당조직들은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금 초급당조직들가운데는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결사관철의 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제시된 당의 로선과 정책, 기본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단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당정책에 대하여 말로만 외우면서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논가림식으로, 유명무실적으로 하는 단위들이 있는가 하면 폐배주의에 빠져 우는소리를 하면서 당정책이 집행되지 않아도 그만, 자기 단위가 주저앉아 추서지 못해도 속수무책인 무뎠은 당조직들도 있습니다. 자기앞에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초급당조직들은 그러한 당조직이 과연 우리 당과 혁명에 필요한가 하는데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성과,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가 바로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사업을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데로 지향시켜나아가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정책에는 초급당조직들앞에 나서는 투쟁과업과 그 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고 당정책이 밝혀준대로만 하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모든 일이 다 잘되어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실천에 의해 확증된 진리이며 과학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초급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빚겨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맡겨진 혁명위업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생산부문 초급당조직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면서 올해 200일전투와 합복도 북부피해복구전투과정에 이룩된 생산적업장이 더 큰 승리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민경제 선봉부문과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의 초급당조직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첨단들과 함께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군대를 비롯한 무력기관 보장부문의 초급당조직들에서는 당사업을 기력있게 전투적으로 진행하며 군인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가보위기관과 인민보안기관의 초급당조직들은 힘있는 당정치사업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군인들을 수행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 초급당조직들에서는 당의 병진로선관철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우리 식의 위력한 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아직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영화예술부문을 비롯한 일부 단위의 초급당조직들에 경고를 울리며 이 단위들이 분발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전환을 일으킬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당의 군사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군사과업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자기 단위에 하달된 군사명령들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집행하며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고 군인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휘해나아가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직들과 판가리결사전을 벌려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하는것만큼 초급당조직들은 오늘의 정세를 청명세계로 보는 안이한 관점을 없애고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 전시체제로 넘어가 전민항전을 본때있게 벌려 직들을 달려붙여 때려잡을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초급당조직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울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지강력을 최대로 증대시켜나가야 합니다.

지강력은 우리 혁명의 필승의 무기이며 그것은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가 믿을것은 결코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입니다.

초급당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것을 당정책판철의 근본요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당의 사상과 방침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고 반복해설하여 누구나 당정책을 자기 집안일처럼 환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일군들은 전무현장에서 군중과 한데 어울려 일도 같이하면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침입식으로 벌려 온 전투장이 만리마속도상조를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며 그 불도가속에서 폐배주의와 보신주의, 수입병과 안일해이와 같은 온갖 사상적병적들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사리로동계급정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최근에 당에서 많이 강조하는바와 같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당정책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조직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적극 활용하는데 생산장성의 예비가 있고 당정책판철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땅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듯이 과학기술 인재들을 찾아내어 적체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을 대담하게 믿고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며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도 잘해주어 그들이 창조적능력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 보급실과 전자도서관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짜고들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가치있는 발명과 창의고안으로 자기 단위 혁명과업수행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참으로 명언중의 명언이라고 하시면서 초급당일군들이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며 모든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여 후방기지를 전방성있게 꾸리고 그에 토대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후방사업을 잘하는 단위들의 경험을 따라배워 축산기지를 하나 건설하고 문화후생시설을 하나 일떠세워도 종업원들이 실지로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당적으로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초급당조직들은 행정경제사업의 주인인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판철을 위한 사업을 배심있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내밀수 있도록 정책적대를 세워주고 사업전위를 보장해주며 사업에서 결함이나 나쁜 면에 대해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경제사업이 잘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경제일군들보다 더 안타까와하며 긴급한 경제과업이 제기되면 그들과 같이 발벗고나서 일을 전무적으로 해쳐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과 지배인, 기사장의 3위1체를 보장하는데 깊은 당적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3위1체의 주인은 초급당위원장입니다. 초급당위원장은 해당단위 정치위원으로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고 지배인과 기사장의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그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일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늘 지배인, 기사장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사업을 의논하면서 호흡을 맞추어 일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조직들이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내부사업에 큰 힘을 넣어 당과 혁명대오의 전투적위력을 배방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을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과 건설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가는 맥질불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려면 당조직들 특히 당의 기층조직들을 정예화한 전투대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초급당조직들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고한 총성과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흔을 철저히 관찰하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초급당조직들은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며 당의 령도를 혁명적신념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일편단심 당중앙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초급당조직들은 오직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하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치의 탈선이나 한걸음의 헛디딤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초급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명도체계에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 발날같은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사실그대로 상급당에 제때에 보고하며 당에서 일단 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현시기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기본은 그들모두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그 어떤 제인이 닦쳐오고 천만시련이 걸썩어도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의 강자, 열혈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조직들은 자기 단위의 실정과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맞게 5대요양을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혁명과업수행을 기본으로 놓고 진행하여 모든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실천과정을 통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조직들은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을 초급당강화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당세포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당세포위원장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며 세포위원장들이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세포들에서 당원들의 당생활수준을 높이고 그들이 당정책판철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양하고 이끌어주어 당세포가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들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초급당조직들은 핵심적인 군중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이 계급적본분을 잊지 않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다 포섭하고 요양하여야 하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사람들과 현행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차별없이 따듯이 끌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제도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의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과 민심을 소란시키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들에 대하여 각성을 높이고 그외의 투쟁을 강도 높여 벌릴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여 동맹조직들이 당의 인견대, 외곽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지도에 힘을 넣어 청년동맹조직들이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대회에 리당위원장들이 다 참가하였는데 현시기 농촌리당사업에서 힘을 넣어 할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을 명도하시면서 농촌리당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농촌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셨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나선 철박한 임무와 현실적요구로부터 농업건설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세대 1선참호로 내세우고 농촌리당조직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리당사업은 당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활력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리당조직들이 전투력 있는 조직으로 튼튼히 꾸러지지 못하고 초급일군들이 제구실을 바르하지 못하고 있는데로부터 농업생산이 빨리 장성하지 못하고 농촌전지가 약화되어 당의 령도업적이 훼손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은 현시기 농촌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업적을 빛내이며 인민들의 식량문제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서기때문에 이번 대회에 모든 리당위원장을 다 참가시키도록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리당위원장은 자신들에 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기대와 리당조직들의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새기고 리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현시기 농촌리당사업에서 중심은 사회주의농촌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이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는것입니다.

리당조직들에서는 농촌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농촌의 참된 주인, 애국농민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농장관리일군들과 초급일군들속에서 자기 리속을 채우면서 농사일에 참가하기 싫어하는 현상을 없애고 그들이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단련하며 농장원들과 고락을 같이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농장의 실정에 맞게 농장원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가별한 전화의 나날 총축안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전식식량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한 전세대 농민들처럼 자기앞에 맡겨진 농업생산과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하여 하루빨리 우리 인민모두가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조직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초급당위원장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2 번 에 서 계 속

초급당위원장들은 우리 당의 핵심이며 당의 강화발전과 당정책판결의 제일선 초소를 지켜선 최선정치일꾼들입니다. 초급당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초급당위원장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초급당위원장은 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당중앙을 맨 앞장에서 옹위하고 받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분신이 되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자신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운명을 함께 할 동지로 믿고 한계 단위의 당사업을 책임진 일꾼으로 내세워준 당의 정치적 신임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며 높은 당적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 임무수행에 심신을 다 바쳐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백옥같이 깨끗한 량심을 지닌 참다운 당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순간의 동요와 변심도 없이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당적 원칙을 생명으로 간직하여야 하며 원칙적 선에서 탈선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며 당의 유일적명도제에 어긋나는 현상들과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제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자적의 모범으로 돌파구를 열어가는 대오의 기수,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일단 시작한 일은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장을 볼 때까지 원강하게 내미는 혁명적전진력을 지니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명을 웨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판결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언제나 전후원장에 위치를 정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대중을 발동하며 련력있는 전투지휘와 드센 장악력으로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철학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 다심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기신 위대한 인민을 위해 자기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당정책을 판별해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 빛내여주며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뱉혀있는 문제를 전심을 바쳐 풀어주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립장에서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이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전정을 바칠수록 군중의 눈동자에는 어머니당의 참모습이 정답게 비껴게 될것이며 온 집안이 하나의 가정으로 단합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당중앙위원회 드락과 한피줄로 더욱 굳건히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전횡과 독단, 세도와 판로주의를 부리며 처신을 바로하지 못하여 대중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당의 권위를 가지고 사업하는것만큼 자기가 담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잘못하면 우리 당의 존엄높은 모습에 먹칠을 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편협하고 조목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중의 신소와 청원을 무겁게 대하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사실과 편견이 없이 당적원칙에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자기 사업과 생활의 전과정이 인민을 위해 한몫 서슴없이 바치는 열사복무의 길이 되게 함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우리 초급당위원장》이라고 정답게 불리워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끊임없이 수준을 높이고 자신을 혁명화하여 유능한 당일꾼으로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사업상권위가 직권이나 간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을 자각하고 정력적인 학습과 꾸준한 노력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폭넓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혁명실천속에서 사업경험을 쌓고 당일꾼으로서의 사업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당일꾼이 정서가 메마르고 목석처럼 딱딱하면 군중과 어울릴수 없으며 향기없는 당일꾼은 군중이 따르지 않습니다. 초급당위원장은 다정다감한 정서와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누구보다 생활을 뜨겁게 사랑하여야 하며 군중과 어울려 노매도 부르고 춤도 추고 대중체육활동에도 적극

참가하면서 실천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이 자기를 완성된 일꾼처럼 여기면서 틀을 차리고 안하무인적으로 행동하면 당일꾼의 책임을 다할수 없으며 자기의 정치적생명도 유지할수 없게 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수시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부단히 채찍질하여야 하며 당정책결사판결의 전투장에 뛰어들어 군중과 승결을 같이하면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장은 사심이 없어야 하며 주색금을 경계하고 생활을 검박하고 청렴결백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에서 당의 초급당중시사상, 초급당강화방침을 받들어 초급당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여야 하였습니다.

초급당위원장대회를 한개 단위를 맡아 당의 의도에 맞게 일을 해체할수 있는 능력있는 일꾼들로 잘 꾸려야 합니다. 당에 충실하고 당사업경험이 있으며 군중의 신망이 높고 내밀성이 강한 일꾼들을 선발하여 적제적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업년한이 짧고 경험이 어린 일꾼들이 초급당위원장 대회에 많이 들어오고있는 현실에 맞게 초급당위원장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잘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조직들에 대한 당지지도를 실속있게 하여 모든 초급당을 당의 유일적명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명도업적단위 초급당조직들이 사업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며 모든 초급당조직들이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당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이번 대회에서 높이 평가된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가 초급당조직들을 강화하는 전환적계기가 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행정판로화를 결정적으로 없애기 위한 변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여러 기회에 집권당인 우리 당에서 당사업이 행정화, 판로화되는것이 심각한 문제

라고 수없이 교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당사업에서의 행정판로화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식의 행정적이며 판로주의적인 사업방법으로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당사업방법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원래 행정판로화는 권력으로 인민들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라고 지적하시였다.

당사업에서의 행정판로화는 당사업을 행정실무직으로 대하고 군중을 업수이여기는 그릇된 관점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그것은 사무실적사업방법과 행정대행, 요령주의와 공명주의, 세도와 전횡, 부정부패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업방법과 작용을 파생시키는 근원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였다.

당사업에서 행정판로화는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동할수 없게 하여 당정책판결을 심히 방해하며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과 인민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판로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되고 혁명을 망쳐먹게 되며 나중에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됩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이 인민들의 버림을 받아 무너지고 사회주의를 만연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는데서 행정판로화를 없애는것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당사업에서 행정판로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에서 행정판로화를 극복하기 위한 변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오직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움직여나가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당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초급당위원장과 모든 당일꾼들은 당의 의도와 결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자신들의 지난 기간 당사업정형을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하며 행정판로화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판로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사업방법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모든 문제를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주체의 사업방법입니다.

모든 당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적극 따라배워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당일꾼들은 인민들에게 지시하고 호명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대중의 통제를 받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판로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당일꾼들에게 주체의 당건설리론과 당사업원리를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일꾼들이 주체의 당사업원리를 용케 체득하고 사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사업의 행정판로화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그것이 뿌리뽑힐 때까지 근기있게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적으로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무겁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당중앙은 전당의 초급당위원장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선 기본전투단위의 정치위원답게 당의 사상판결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선에서 생생한 길을 헤쳐나갈것을 바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초급당위원장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앞에, 우리 혁명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당사업을 혁신해나갈 때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의 날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초급당위원장들에게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물 위하여 헌신분투해나가자고 절철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활로를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격렬한 관심과 기대속에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지도하시고 폐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깊은 관심과 높은 기대속에 진행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적적승리를 펼친 뜻깊은 올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는 적절한 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 초급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전지하게 토의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초급당위원장대회를 통하여 당사업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초급당이 맡고있는 중대한 위치와 역할이 재인식, 재확인되었으며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백배로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대회가 우리 당과 혁명의 발전적요구에 맞게



전투장소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총공격전의 기수,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200일전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자기 단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가야 할 길은 멀고 과업은 방대하며 온갖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의연히 간고성을 띠고있는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옮겨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초급당조직들과 초급당위원장들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앞으로 건강하여 전투초소마다에서 왕성한 일욕심과 배기와 정열에 넘쳐 당중앙의 의도대로 보다 큰 성과물이 북돋아나가기라는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참가자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지름길을 열어놓은 뜻깊은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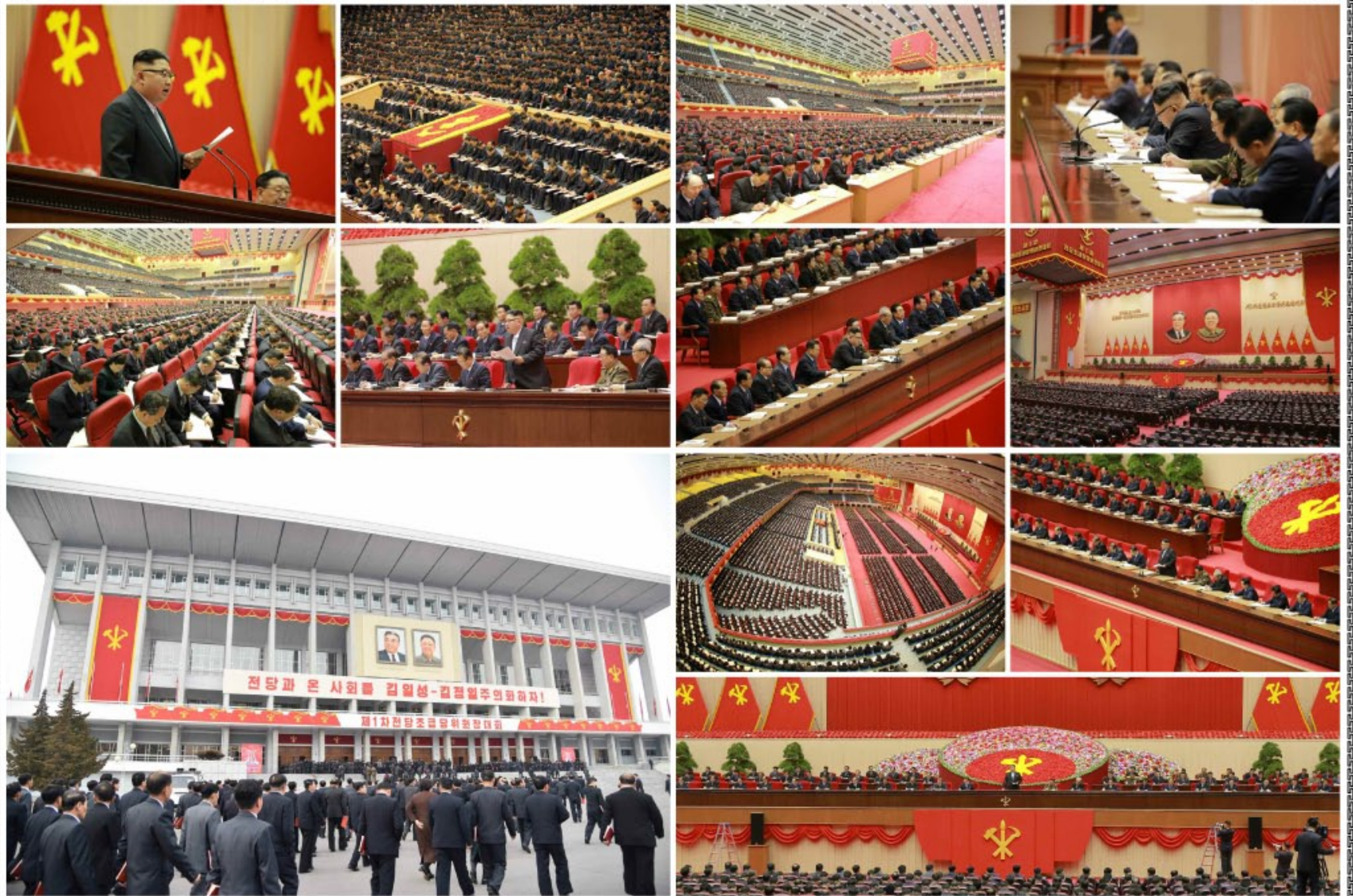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조직들을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다지고 그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는데가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전체 초급당위원장들이 대회정신을 뼈에 새기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사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명적양상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초급당위원장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전당의 초급당조직들, 수만의 화력중대의 진군포성을 장엄하게 울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제 1 차 전 당 초 급 당 위 원 장 대 회 폐 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투쟁행로에서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2월 25일 폐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대회의 3일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평양 제육관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지도 밑에 회의는 계속되었다.

이날 회의는 우리 당의 초급당 중시사상을 피력한 실감마다에 조아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역사적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역할분담의 신념과 혁명적의지가 새차게 분출되는 속에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제명군 삼지강리당위원장 리주남, 사리원시인민보안부 정치부장 빈문복, 문수물놀이장 판리소 초급당위원장 김현철, 평양 애육원 초급당위원장 김만옥, 원산 구두공장 초급당위원장 전병화, 광책배아평공장 초급당위원장 박인철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 부무를 존재방식으로, 혁명적대중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당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시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가르쳐주시대로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들을 강화해나갈 때 전당이 강화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더 굳게 새겨안게 되었다고 그들은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명군 삼지강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자기 고장에 어려있는 당의 명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냈었다.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당결정에 반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대형모자이크벽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의 심장마다에 그리움의 불길, 결사판결의 불길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게 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초급당조직들이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들어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청년교양에 품을 들임으로써 새 세대를 위한 교양방법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원산구두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애부산》구두를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가장 정확한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머니당에 드리는 고마움의 노래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게 울려 퍼지게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가르쳐주시대로 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천부모의 정을 기울이는 어머니가 되자면 당조직이 교양원들의 어머니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온 평양애육원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성과는 참가자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되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한 교양원을 끝까지 이끌어 원아들로부터 《엄마》라고 정답게 불리워지게 하고 《최머니엄마》를 만들어 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바치는 자기들의 진정을 새겨보도록 한것 등 실정에 맞는 참신한 사업방법들을 구원하여 당의 후대시랑을 꽃피우는데 이바지하였다.

문수물놀이장판리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뜨겁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판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초급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풀어나갔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갔다.

총업원들을 당의 인민편을 세심화한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궁정을 통한 교양방법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원산구두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애부산》구두를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상품, 명제품으로 만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시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가장 정확한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초급당위원회 위원들이 매일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였으며 매일 군중합정회도 조직하여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도안을 내놓도록 정치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오늘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킬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대회에서는 일부 기층당조직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전향들이 비판되었으며 그들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충정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도 바로하지 않아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영성을 흐리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또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원칙을 어기고 행정대행을 하면서 독단과 전횡을 부리었으며 당의 혁명적중로선을 위반한 결함들이 엄중하게 비판되었다.

비판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인민에 대한 부무관점을 바로 세우지 않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지 않는다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존엄은 온 권위에 손상을 주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다.

토론들에서는 모든 당인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체질화하고 인생관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와 명도방법에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토론들을 통하여 모든 참가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자기들의 사업과정을 당적관심과 당적원칙에서 심중히 돌이켜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뿐만 아니라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본질적인 결함들이 깊이있게 분석총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대회에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당의 야전지휘관들이 초급당위원장들의 대회를 마련해준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결론을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강령적지침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전격투를 열어나가야 할 직접적담당자라는 무한한 영예와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역사적인 결론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

이 터져올랐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우리 당을 열기왕성하고 전투력이 강한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끈끈히 다져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의 구호를 우렁차게 웨치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머쳐올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대회는 《눈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후 전당적인 첫 대회로 소집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적극 고무추동한 혁명적총진군대회로 우리 당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